英軍心租界線

機關銃。三至警備

當局警戒一 の退却かの日

自 学 者 도

自己

英國警戒와中國人反感

軍의追撃。 一司引はいるのでは、 亡如前

0 選艦隊が襲來 登高

5日頭 5.通告하吹 5.日右 5福一野の 1.1十四日 上海領事も李賓章01.1十四日 上海領事と李賓章の2.1十四日 上海領事と海二十五日愛) 上海戒酸 山東軍暴虐肆行으로

私普期成

千圓積立金。三

四日午後早は總撤市おり、日子、京入城平共の軍用崇言の行動と、こい商店の1十一条階で行動と、こい商店の1十一条階で行動のでは、1十五日後) 山東軍南

어하商物이역 婦人 지러기業은러볼朝人關

**当農會의解决** 

だ賞人選及大 城質動川の公三漢上吟』の分 城質動川の公三漢上吟』の分 受音募集立山成績の頗可良好 般第一回三嗣、藻、菊、花의詩 般第一回三嗣、藻、菊、花의詩 般第一回三嗣、茂、菊、花의詩

四萬圓計上、四萬圓計上、四萬圓計上、四方第年度豫第案公司議立結果着手等新規事業智ノス中公會堂建設費と四萬圓の記計上日公司の大邱)

かざい前旭町中國人禽順和市のと消防器具の不完備を 城津消防組計劃

金成尹致鍊歃石海尹弘燮李细佛蒙坪李永镇尹朗斐李元继田(堤川 金仁英(京城)▲三等菜) 鄭隆時、镇城)朴浜龍(南城) 金贵玉女史(洪原)▲三等载(堤川 金仁英(京城)▲三等载(堤川 金仁英(京城)本三等

されるのでは、これのは、これのでは

是因かりいか。中はかには次りける情報は選組なりには情報機構

二十餘人所有以此對計口

部門田青門定と結局教育의 中央 (1) 中

一 学校工学是天市中日、中(光州)川工事被工期限の明年三 上の被工司の水六日頃。『ご全部 上の被工司の水六日頃。『ご全部 上の被工司の水六日頃。『ご全部 上の被工司の水六日頃。『ご全部 上の被工司の水六日頃。『ご全部 大月 (現) 大月 (

光州河川工事

一使用量

つ負擔

| 先無 | 児童学教養引編하り募集

※ 当火災時の附近家屋四五棟当全機が七幡駅会望メ及合の三つの機が七幡駅会望メ及合の三つの機がの前が組の分と完全世際具一番音幅版列為から五百圃為限

ら輔仁學校引受言運動

元。우리힘으로維持하자

端川郡水下面仲呼用高山村の外には海川郡水下面仲呼用高山村の外面管開党が男女老少が百餘名の電管開党が男女老少が百餘名の達が別の対策民間が出現大名が関づける以び

開西人親陸會 鎌原の水利組合の創設互後各處の外親 水利組合の創設互後各處の外親 以上号占하얀已町今般の關西 長二十七日午 及二時の線原邑內中里本親支局 内の分開空中之可設超人已張敏 素、金額者、福承五、全藝欽外 十人の中日中(級原)

今司生活難의原因及對策 根本만以으면 卒得世 根本만以으면 卒得世 を可引きのいや司의生活

記者交曜會

**上校s**死活問

端川農民講演

各地의普校期成熟

の中国が生活の窮宮色のよいは、金泉郡金泉南南山町の以と朴喜が兵と社會が築っている旋力を形とれる。

近二百戶稅金合

0 

日間が中心が表面の出外は以来が出版が多足が氏に各資民の日別的一二期分)の自進から代納がおけた可を出面七十一日海の代納がおけた可一般人上と確認不已む中日中(寫真の日本氏(金泉)

地主對作人

產業組合 嚴選主義 十二個가량年度末叶月

平原煙草消費

汗浦幼稚園 

大邱公會堂

1 別項=汗浦幼稚園理事會の分元表廿四日午後八時の市内許島氏集の分緊急會議臺閉計立汗浦社助金号總續計の岩干の網品の中午勝氏の一致可決写の日中(汗浦) 郷以製造者表彰明川 郷山の製造者表彰明川 郷山の製造者表彰明川 郷上加町の三年の一百四十餘人の三一個 競技大會量開か立郡子一百餘圓の遠 外各面長三臨席が収ら四同前陽外各面長三臨席が収ら四同前陽 外各面長三臨席が収ら四同前陽 外各面長三臨席が収ら四同前陽 外各面長三臨席が収ら四同前陽 外各面長三臨席が収ら四月前陽

 $\Diamond$ 

寸

鐡

對策會講究

輸出は口口 一月中城津港輸出入状況の輸出 一月中城津港輸出入状況の輸出 一月中城津港輸出入状況の輸出 高の建立中口引入状況の輸出 城津貿易

 $\Diamond$ 

【總川】 孟山某駐在所巡資中の司と祭祀るのアメリーズを示言当るに入り上がる下言当るに入り上げる市

『金泉』第二次及頻暖止減動をおけている。 第二次及頻暖止減動

開城各普遍校

○【三院】本郡郷校掌籍選罪の一金一百七十團也言選動資豆や者가の中、ユョコエヌ港選出リ南無阿彌陀佛! 

平装备普通校

市內私立普校 東王普校約百名 三 三 三 三 東王普校的百名 三 三 三 三 東王 普校的百名 三 三 三 三

母鑑智言開催한다日라(仁川)

公普學藝

市內公立等校

解决의要素

本語 (本語 ) 表示 (本語 ) 表

鳳凰城農友會

長湍然

教養令

은幾

의

주 (要案)인 원진오(千珍午) 의 이가서 돈이삭원을 꾸어가지 자괴집으로 돌아오는증간정 자괴집으로 돌아오는증간정

不貞並妻로 卫舍收之甘旺

지난유령정월십사일중남의산관 디자면현화의 (瑞山郡地谷面遊北里) 산흥감시(山林監觀) 각정 채(金正宋)의집에 는일장봉파가 채(金正宋)의집에 는일장봉파가 대통리김청희(金聖會)의장미김 각난(金干職)이라는 당년 열여 김 김 (瑞山面邑內里)이라는 당년 열여 김 지금으로부러산 일상 기자는 지금으로부러산 의(瑞山面邑內里)에사는류근식

つ思述コウラや(能)でいてか一日であり、ありはより、思可のは日本なが、かい日子や、日本のハン・日本のかける日、「選を置って不に

[11+11]

『아유 지급점라 나데 .....』 하는수자는내가 언제 알릿첫느 냐는데물이다

[왼의이서요?]

[의사가 무허매요? ! 의사가 무허매요? ! 기조라고좌여요!

악하야운반한 哀願 殺到

科差押後聞 疫死亡者數

數百家族

소망이들러서

□정당아주(平削安州)에는 (紅按)이창書하야날도사망 다수한원상인데 지나간원 러지물까지 아주정찰의(安 撰纂)판내의도사한 루계를 다음과갓다려라(안주) 다음과갓다려라(안주) 婦不和是飲毒

府當局者亡

京河)のイトなどが(城津郡鶴

上無効

浦面鳳總里)の外にひなり(金昌足らむ甘平田を写可(保寧郡藍 飲毒自殺未遂

賊反荷杖の豆

자 방는다는데 이케그 내용을 알어 보건대 전기두사람은 작년심이 오후에지장에 지내수명(際町) 무 월에 원기감오리 김치윤 (金麗 월십삼번디박춘근(朴寮根)의집 무 允)(리)이라는 사람의로디일만 안해 난지이십월가량 되어보이 산천이십월과일 매평 칠십오건 는 제집아이를 내어버린것을빌 대자약하고 제약금월천원까지 인 전하야 즉시대구부령의로 보내 지약하고 제약금월천원까지 인 전하야 즉시대구부령의로 대구 인(後見人)김단렬난김회윤의 확 서에서 항상범등을십고개 활 위는 미청단이동시 원기두사람 등증이두바 이번에는 더욱이엄 의묘임에 넘어서 그와가디로디 중이주색증 이라고(대구) 관 제)인지난 이십일에독약을먹고 자설하라하였다는데그자에한내 지못하야 부모의 걱정인누립고 독촉는 심하야 그와가리죽이려 한것이라더라 명스나 사용에 한곳방게입는배 무스나 사용에 한곳방게입는배 다할수업시 리사XX는 현정함 는길로 젊으인해에게 수상스린 문학수를 정하면다 면당모의를 보인이 안정팀어로 건너다보면 보인이 안정팀어로 건너다보면 보인이 안정팀어로 건너다보면 보인이 아저들이 요지정안의그림 모양이로산십분도못되는 사회 이용아버린것이다 여러사건들을

미그러나 맥일이? 의 기정역시 그러한 한숨에한복을 보고있다가 수사있는 병원들형 하였다 정문을 들어스라니까던 한동안히 돌아쉬었는 젊으려지 는어느밤의 밤는제이즐만 알렛 는데 그것이 수자이었다 이그득래 못시는 를 서인조 그림찬도하어차마 쉬가 존것을 이 시네 그리찬도하어차마 쉬가 존것을 이 시네 의 만 볼 케 나 다 가 며 어떤 이 먹 요시 만 그 나는 그 어 수다 쉬 나 있으므로 이 보다 있다. 모래빗에 밝으시기 당이도 당이도 당이로 당이로 당이로 당이로 당이로 당이로 당이로 들었다. 면커 건너오 며그가리물었다 하는바람에 스

정원을 하당다한 는 별장보도한 嶺美警察A沒常識 『新朝鮮』。宣無理押收 

상부의명령이라고압수

그일안주시내(安州市內)에 (무)하야 크라져을 방교인들은 시대(安州市內)에 가다방에서 작부(附屬)들이 서대 청황을 일우는 현상임으로 풍괴가 여간들려지지 안했는데 경찰당국의 취래지지 안했는데 기반이는 장래를 위려지지 안했는데 기반이는 생겨가 당당하고 작부계가 항상이라고 일수있다고 安州風紀紊亂

그러라 역러사람들의 해당이거 짓이아니었다 영업부의 XX의 조희상당에가게우편국에는 이 가리 들어온도이잇습니다만 오

시고 성인이로 다라나

지난이십이일 안인방등에 오줌 명의장년이지동차를달리어평원 간 명의장년이지동차를달리어평원 간 대 마마을 알어보건대 평원간 다리 의 시 하당이 건강한 건경하면 이 가 그 아들을 다리고 건지 그 아들을 다리고 건지 하당이 논단말을 다리고 건지 하당이 논단말을 다리고 건지 하당이 보건대 평원간 되었는 등을 우지 스트 건지 그 이 등의 바탕에도 이 어느는 이 아는 목행(사) 그 수집의 문을 다리고 건지 작 이 어느로 하이 가 보는 이 이 어느로 바탕이 되고 소하이 기 등의로 나는지 라이에 보는 등의로 나는지 라이에 보는 등의로 나는지 라이에 보는 등의로 보다 이 이 기 등의로 바탕이 되고 살아 있는 그 아이 살등이 가 해 자인 기 를 하다 한 기 를 하는 한 기 를 하다 한 기 를 하다고 한 기 를 하다고 하다고 한 기 를 하다고

조회가 업성구나는 과호는

다는데 차지막가서 오지를만 어요!하며그는죄나 지으듯이 되얼말이 붉어지먹자장으로나려간 의 보고 사람에 무엇인가하고 보니 그것은 작용이 어린이의 송장만 한조회점이들의개에 떠고용장이 로롱한분의분고리를잡고셨는과 그것이로B 전사합場이이분이 보시에 풀리 첫다 『그것은 왜 이리로 가지고 나

당시하 얼마스나 **분압하였어** 조수디잇디 그에 달하다 보신의 솔루이 땅이 되었다. 당존 최초다 고만한지 당시 다시탐의 도칭이 이 나다!

『자고가 식혀요』 『아무리케나요……』 스치어서 동소문이되어 별고 맛 『岩豆次八い豆八叶Q?」お口『岩豆次八い豆八叶

이 얼마시시하네즘처이다 보면 

로 큰길이나의 면치를의 로 큰길이나의 면치를의 자동나의이쉬 중도시점을